

하진의 생일을
축하 하면서~~

서른
번째



2018. 6. 21.

태어난 다음 날 ...

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?



최예산복인카
(88. 6. 22.)

궁금한 것도 많았고 ~
웃음도 많았지 ㅎㅎ





바둑을 언제부터
둘까? 고민이네..



단짝 친구들과 ...
남연우, 최형원, 이하진, 전초빈





대청호 주변 나들이~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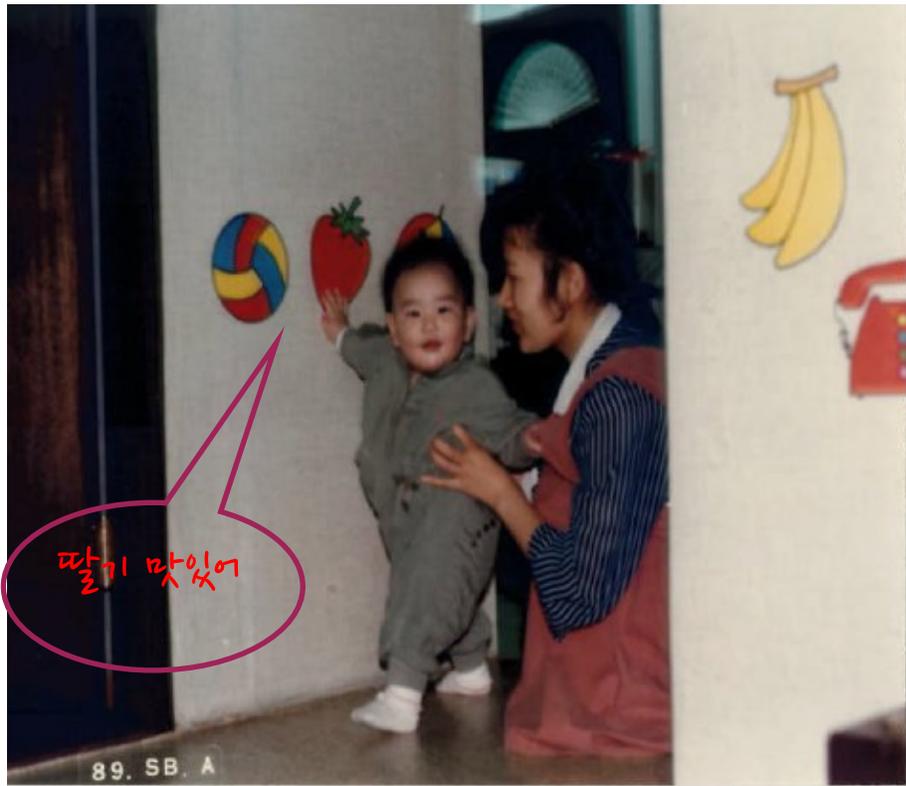
플루랄라~~~





내가

한 살이라고?







아빠 친구 결혼식 가는 날 ...



가위 바위 보
이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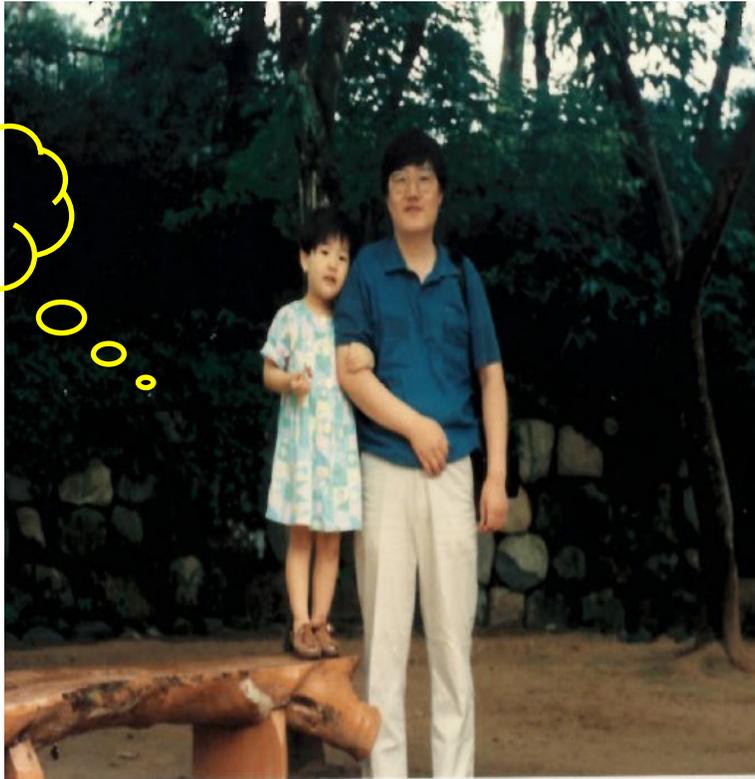




힘은 세서 ㅋㅋ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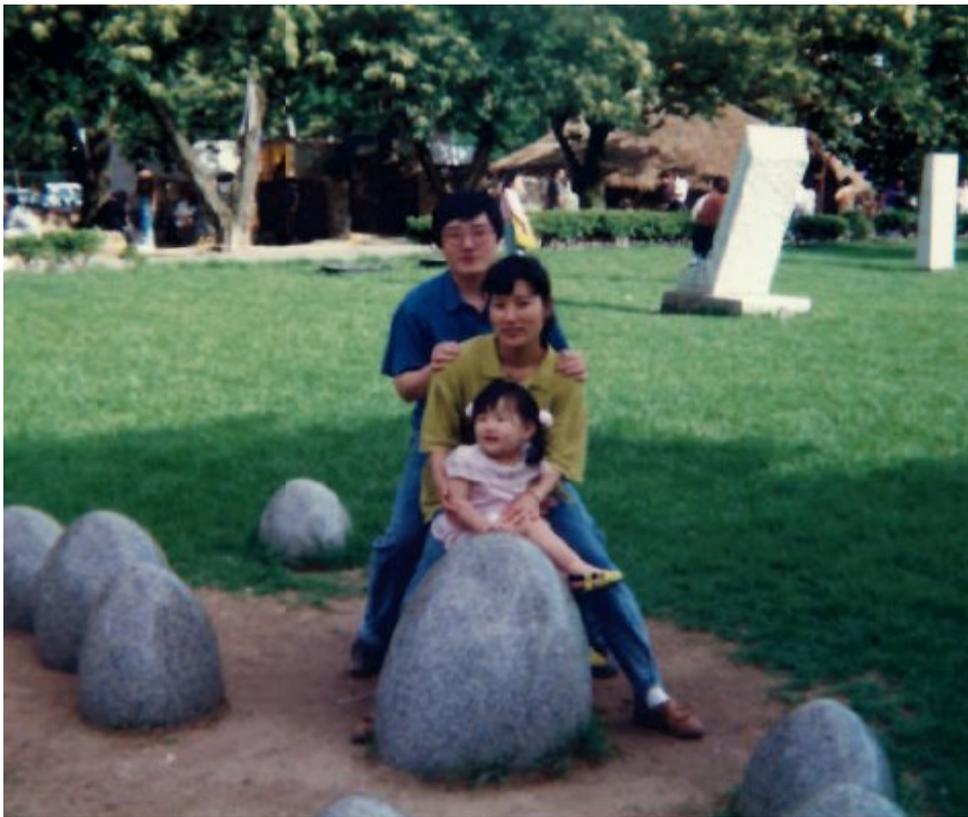
포항에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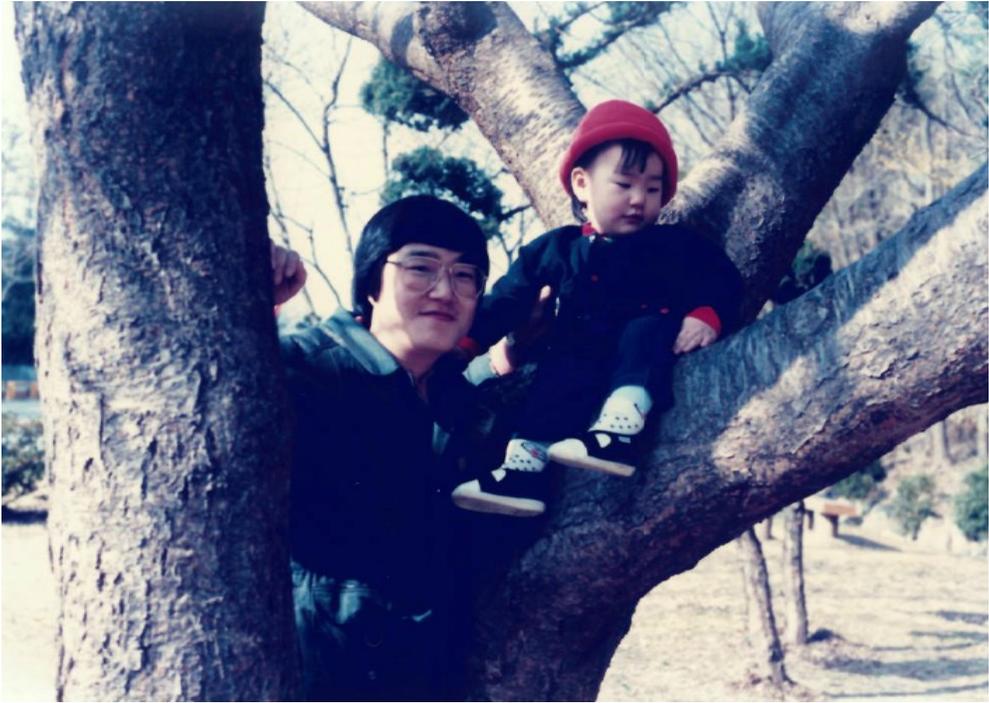
경주에서

전 가족 나들이 ..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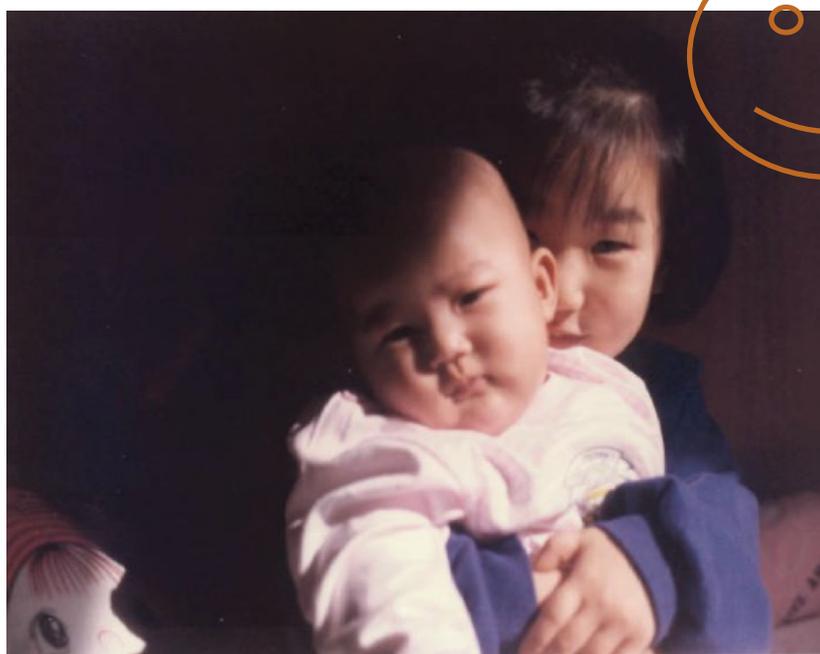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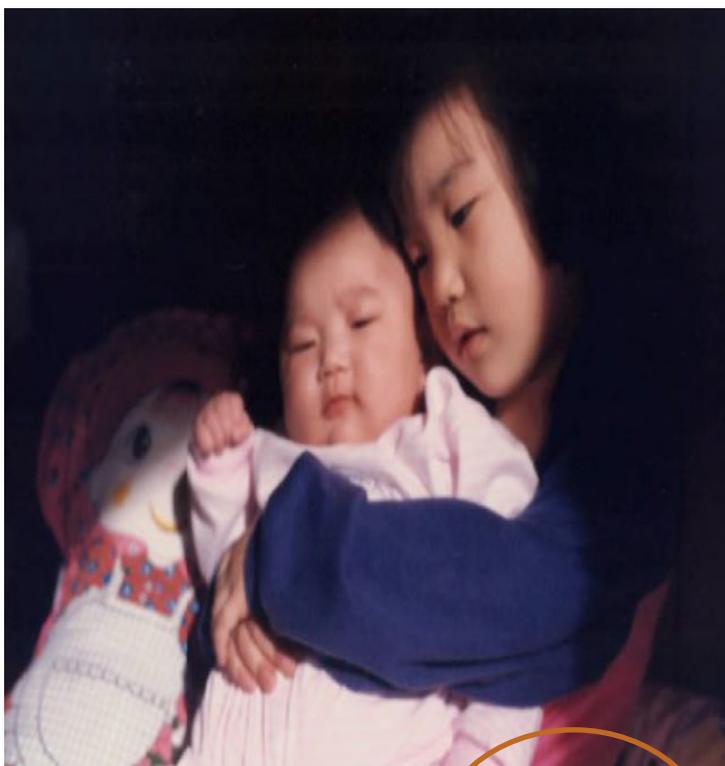






아빠와 1박~2일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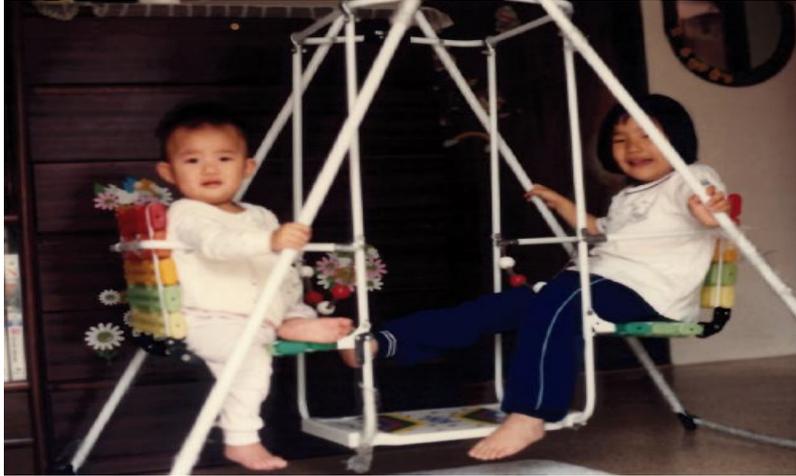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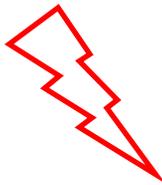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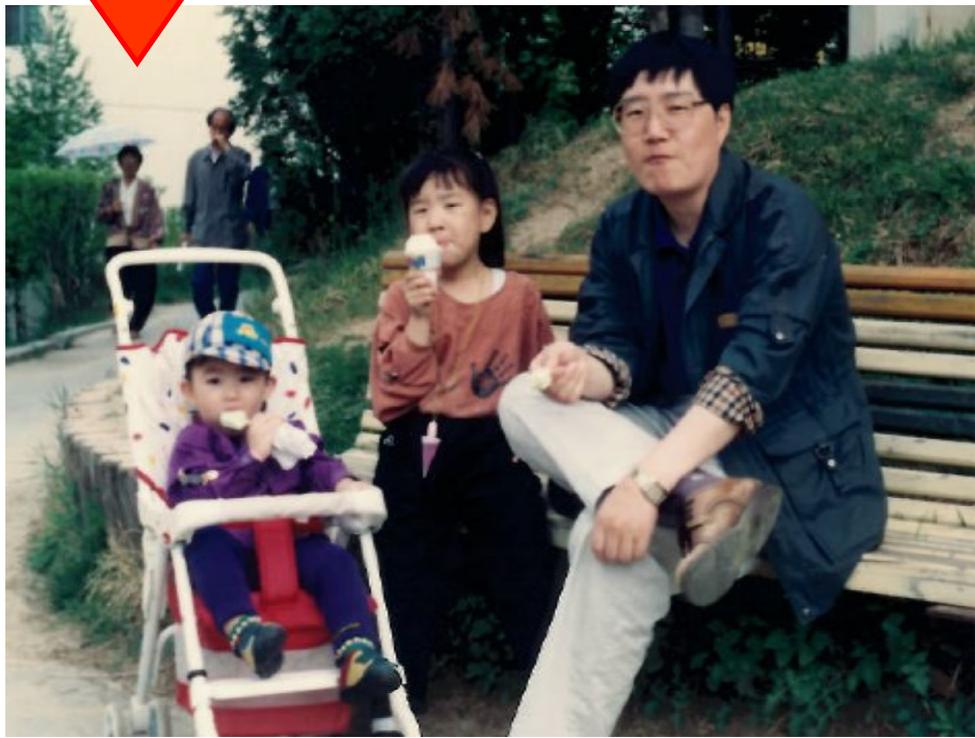
책 읽어주는 언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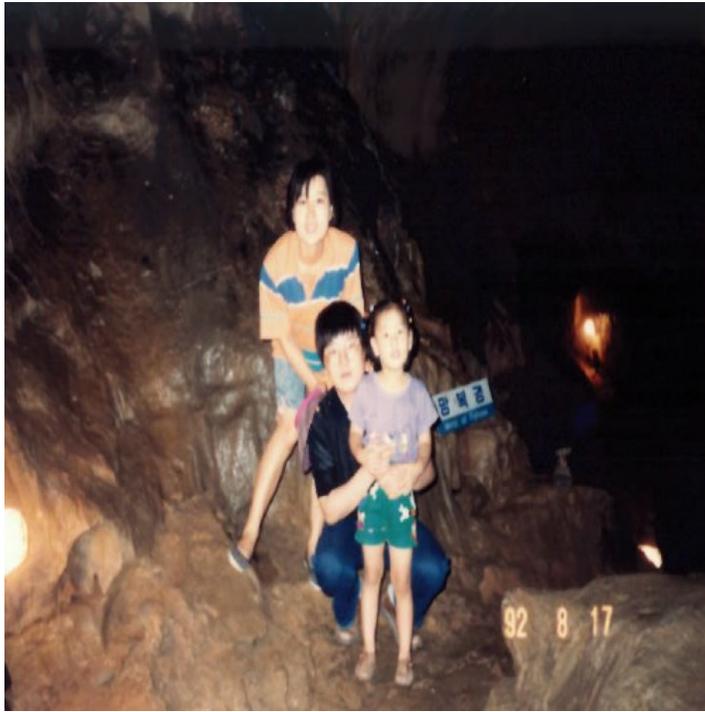




남친들 .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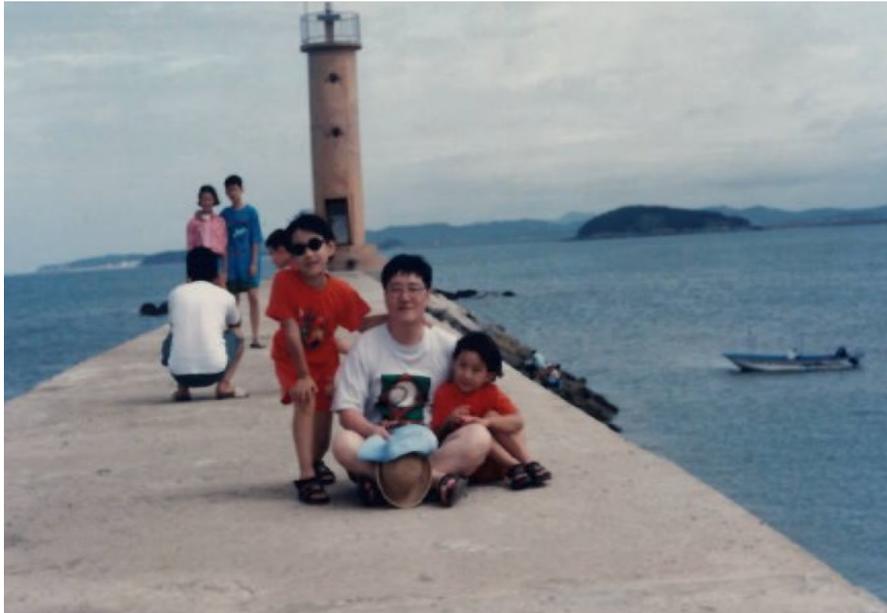


밀알재능유치원





서해바닷가에서
짜짠~





수줍은 숙녀~





하영 두 살 ~







기억날지 모르겠네 ㅎㅎ□

애기 때의 너의 모습을 ~

벌써 □

30년이 흘렀구나 □

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.



□

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니 너의 인생을 잘 개척해
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▣▣▣

바둑과 함께 성장했고, 큰 그림을 그렸고, □지금
은 바둑으로 인해 반려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

...

그러나 또 다른 진로를 그리며 □

직업으로 선택한 모습도 이색적이다.

이것이 너의 매력인 듯 ^^

□

그 동안 고마웠고,

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. ▣▣

2018. 6. 21. 엄마가□

* 어릴 적 사진만 몇 장 모아봤어~^^□